

미당시의 제의적 변용에 대한 고찰

최정숙*

- 차 례 -

1. 서론
2. 원형 화소의 형상화 양상
 - 2.1. 제의적 원형성과 모티브
 - 2.2. 샤머니즘과 형상화
 - 2.3. 정령관과 시적 상상력
3. 결론

* 호서대학교 조교수, jschoi3834@hanmail.net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미당 서정주 시의 제의성 분석을 통해 미당의 시 문학에 내재해 온 상상력의 또 한 층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후기 시집 『질마재 신화』와 『서정주 문학전집』에 수록된 시 중에서 시적 화소가 질마재라는 문학공간에서 어떠한 상징적 변용을 이루어 나아갔는지를 형상화 과정에 주목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변형과정의 원형성은 삼국유사나 마을의 전설에서 드러나는 주술성을 기반으로 한 서사성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문학공간으로서 질마재는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같은 영상기술(CT)과 접목하여 문학교육의 효용성 제고에도 주목하였다. 이러한 원형 비평적 관점은 신화나 무속에서 신이나 정령과 직접 동기 감응하고 그 사이에 신탁(神託)과, 예언, 병치레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례를 행하는 주술 행위를 하는 종교적 직능자인 샤먼에 기반 한다. 미당의 시는 그 원형적 의미에서의 샤머니즘과 주원의 시적 이미지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냈다는 점에서 담론의 의미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질마재의 세계에서는 신과 인간의 소통은 결국 질마재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인간 전체의 소통으로 이어진다. 미당의 시에서 민간신앙적인 시적 제재는 과거와 현재를 시적인 영감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그 요소는 샤머니즘적인 문화공동체적 삶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연구가 미당 시의 제의성 연구의 폭을 확장시키는 데 자그마한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질마재, 무속, 무당, 사령(死靈), 제의, 정령, 칠성신, 재생, 주술

1. 서론

지금까지의 미당 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시적 전개와 변모과정에 대한 연구들과 불교와 신라 정신과 관련된 논문들이다.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불교사상과 토속적인 시세계를 형상화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먼저 서정주의 시에 대한 연구 중에서 무속과의 연관성 있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근웅¹⁾은 서정주의 시를 정신분석학적인 원리로 접근하여 용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양소영²⁾은 서정주의 시 세계를 구술체 형식에 나타난 주술성과 샤먼적 아이로 질마재 신화에 나타난 샤먼적 거울로 평가하였다. 즉 샤머니즘에서 주술이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힘이라는 것을 주술적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오태환³⁾은 서정주의 시에 나타나는 무속적 요소들을 탐색하였다. 무속의 상상력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었지만 결국은 무속적 요소들이 그의 시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생성되는가를 연구하였다. 오문석⁴⁾은 서정주의 시에서 신라 시대의 풍류정신을 샤먼의 신화로 탐색하였다. 그러나 서정주 시 한 편만을 가지고 샤머니즘의 근거를 찾고자 한 것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오⁵⁾는 무속적 사유체계와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한국인의 의식에 축적되고 잠재해 있는 무속적 원리에서 시작한다는 가설로 미당시의 무속적 상상력을 연구하였다. 결국은 무속이 전통적이며 한국적인 의식에 층위에

1) 육근웅, 『서정주 시 연구』, 국학자료원, 1997.

2) 양소영, 「질마재신화에 나타난 샤머니즘 양상연구」, 『겨레어문학』 51집, 겨레어문학회, 2013.

3) 오태환, 「서정주시의 무속적 상상력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6.

4) 오문석, 「한국시에 나타난 샤머니즘연구」, 『한국시학연구』 제38호, 한국시학회, 2013.

5) 이상오, 「미당 서정주론」, 『고려대 호원논집』 8집, 2000.

속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김수이⁶⁾는 질마재 신화에 나타난 공동체적 상상력이 민간신앙과의 유연성을 분석하였다. 질마재 신화의 발생 배경에는 근대화의 이면이라는 점과 공동체로서의 민간신앙이 몰락하면서 무당이 공동체를 위해 수행했던 역할들이 마을사람들이 나누어 가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의 전통 마을 공동체를 형상화한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만을 부각하였다.

김수복⁷⁾은 앞선 여러 연구와는 달리 『질마재 신화』시집의 문화콘텐츠 활용을 위한 문학공간에 대한 연구로써 작품성과 현장성에 주목하여 온-오프 라인에서 영상문화콘텐츠와 테마파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문학공간으로서 질마재의 서사성과 현장성, 그리고 상호작용성을 중요한 담론으로 탐색하였다. 시의성이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인다.

서정주의 시집 『질마재 신화』와 『서정주 문학전집』에서는 무속적인 상상력이 가장 두드러진다. ‘질마재’는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에 있는 마을이다. 미당은 어린 시절을 이 마을에서 보냈다. 이 마을에서 지낸 과거의 추억을 시로 형상화한 작품이 『질마재 신화』이다. 이렇게 볼 때 ‘질마재’라는 출생지의 마을에 ‘신화’라는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통시성을 지닌 토착적인 서사가 바로 『질마재 신화』이다. 『질마재 신화』는 신화적 화소를 바탕으로 샤먼적 화소를 서사적으로 융합하면서 민족적인 집단무의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것이 다시 신화적 원형성을 언어 예술로 형상화함으로써 한국인의 현대적인 저항감을 해소시키고 원형문학으로써 신화의 재구조화 라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질마재 신화』는 신화와 무속의 원형성을 문

6) 김수이, 「질마재 신화에 나타난 공동체의 상상력」, 『한국문학연구』 48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5.

7) 김수복,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위한 ‘질마재신화’ 공간분석」, 『한국문예창작』 통권14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8.

예미학으로 변용시키고 있다. 특히 『질마재 신화』에서 샤머니즘 세계관은, 어린 시절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시적 자아의 발현이 우주적 감각과 세계에 눈뜨게 하는 원초적 경험으로, 또한 토착 정서와 결합되어 역사적으로 응어리 맺힌 한을 풀고 닦아내려는 카타르시스(淨化, katarsis) 과정을 통한 제의적 상상력으로 승화되어 나타난다.

고대의 시가 가운데는 제의와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들은 대체로 주술성을 지니고 있다. 가야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구지가」는 무속적 주술성을 가진 작품이다.⁸⁾ 이처럼 한국의 시가 문학은 무속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현대시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유연성은 계속되며 언령설(言靈說)에 기초한다. 이 외에도 「처용가」나 「비형랑가」 등도 귀신을 쫓는 벽사(辟邪)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노래를 통해 귀신을 쫓는 것인데, 이 노래들이 무속적 주술성을 지녔음을 말해준다. 또 「도술가」 「혜성가」 「원가」 「보현십원가」 등의 향가도 주술성을 지닌 노래이다. 즉 귀신을 쫓고 하늘의 괴변을 퇴치하거나 병자를 낫게 하는 마력을 지닌 주술성이 있는 노래들이다. 정령(精靈, Animism)은 넓은 의미에서 영혼, 사령(死靈), 조령(祖靈), 영귀(靈鬼) 등 신성한 귀신들을 포함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들과 같은 명확한 개성을 갖지 않는 종교적 대상을 말한다. 이는 인간의 영혼이 외계의 사물에 투영된 것으로 원시 종교나 민간신앙에서는 정령의 관념이 지배적이어서 정령에 대한 숭배도 성행하였다. 정령은 인간의 길흉화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두려운 마음에서 정령을 위무(慰撫)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도 행해졌다. 『삼국지』에 보면 ‘삼한에서는 5월이면 언제나 신에게 제사를 올렸고 노래와 춤을 추고 술을 마셨

8) 『삼국유사』, 「駕洛國記」, “거북아 거북아/ 네 머리를 내어라/내어놓지 않으면/구워서 먹겠다” 내용으로 가야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더니 하늘에서 수로를 내려 보내 수로왕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다. 그렇게 하기를 밤과 낮으로 그침없이 하였다. 그 때 수십 명이 춤을 추었다⁹⁾고 하여 삼한에서는 귀신을 두려운 존재로 소중히 여기고 매년 5월과 10월에 제사하는 행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격(神格)에 따라 개인이나 가정의 화복(禍福)을 좌우하는 신이 있는가 하면 마을이나 특정한 지역의 길흉을 좌우하기도 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도 있다. 친근감 보다는 경외감을 가지고 위력에 의해 재화를 면하고 복을 얻고자 귀신을 숭상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무속은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전의 상고시대부터 한민족의 원시신앙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것은 물론 외래종교가 들어온 후로도 민간신앙으로써 한민족의 기층 종교 현상으로 존재했다.¹⁰⁾ 무속의 역사를 보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나오는 제천의례에 대한 기록과 ‘삼국유사’에 기록된바, 원시신앙으로써 무속은 단군, 주몽, 혁거세, 수로 등의 시조 신화에 투영된 제의적인 흔적들이 있다. 무속이 문헌상에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로 신라 2대왕 남해차차웅의 차차웅(次次雄)은 왕칭이자 무당을 뜻한다.¹¹⁾ 이 외에도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단편적으로 무당의 기록이 보인다. 단군(壇君)이라 함은, 비교언어적인 관점에서 알타이어계의 (Tangry(turk), Tengri, Tanggut(mong), tngwi(man))으로나 무당의 우리말 방언형인 (단골, 당골, 당구르, 당골레)로 보아 단골(당골)의 이두식 음차형으로 볼 수 있다.

무속에 대한 자료는 제정일치 시대에 환웅천왕이 신시(神市)를 베풀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신시는 제왕이 하늘에 제사하는 신성한 장소요 굿당이다. 그러므로 환웅과 단군은 제천의식을 주관한 무당이라고 보아야 옳다. 제의를 수행하는 공간이 신단수의 신단(神壇)

9) 『삼국지』, 「魏志東夷傳」, "三韓常以五月祭鬼神歌舞飲酒晝夜無休其舞數十人."

10)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5, 18면.

11) 『삼국유사』, 「紀異篇 南解王」, "新羅稱王居西干 辰言王也 或云呼貴人之稱 或曰次次雄 或慈充 金大問 云次次雄 方言謂巫也 世人 以巫事鬼神尚祭祀 故畏敬之."

이다. 신단의 제사장이 단군(檀君)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무속은 단군신화에 뿌리를 둔 원초적인 태양숭배(太陽崇拜)의 신앙에서 비롯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²⁾

2. 원형 화소의 형상화 양상

2.1. 제의적 원형성과 모티브

미당의 시에서 제의적 원형성은 단골이다. 당대 민중의 구체적이고도 보편적인 삶의 일부로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공동체적인 속성을 함의하게 된다. 무당으로 갓 태어난 애기 무당은 신 아버지나 신 어머니가 되는 무당으로부터 굿하는 법, 무의나 관습 등을 포함한 내림굿을 받는다. 이 내림굿 중에 몇몇 신령이 그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그들은 애기무당의 몸주로서 신당으로 모셔진다. 축제에서 일종의 영신(迎神)의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흔히 굿의 종류로는 가정과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일반적인 굿과 마을의 생활 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동신제인 당굿이 있다. 굿의 어원은 무당이 신을 청하여 환대하고 환송하는 제례행위를 말한다. 한편 굿은 그런 제례 행위를 행하는 굴 같은 공간을 말하기도 했다.¹³⁾ 일반 굿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굿과 죽은 이의 영혼의 저승 천도를 위한 굿으로 구분된다. 일반 굿은 기복을 위한 재수굿, 성주굿, 삼신굿, 칠성굿, 치병굿, 환자굿 등이며 사자의 영혼을 위한 오구굿, 지노귀굿, 사자굿, 씻김굿, 조상굿, 수왕굿, 망목굿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죽은 사령을 위

12) 최정숙, 「요하문명의 문화기호론적 탐색」, 『선도문화』 23권, 국제뇌교육종합대학 원국학연구원, 2017, 217-245면

13) 구바얌(土批蛇) 土批蛇其群衆能鳴(유씨물명고2-2).

한 곳도 결론적으로는 산 자의 평안과 행복을 비는 것으로 귀결된다. 공동체를 위한 동제는 마을의 액을 막고 풍년이나 풍어를 비는 곳인데 당곳, 서낭곳, 별신곳, 연신곳, 서낭풀이¹⁴⁾ 등이 있다. 곳은 어느 만큼 신과 인간이 공존하게 하는 오신(娛神)의 절차적인 의미를 지닌다.

질마재 사람들 중에 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드물지마는, 사람이 무얼로 어떻게 神이 되는가를 요량해 볼 줄 아는 사람은 적으나 많습니다.

李朝 英祖 때 남몰래 붓글씨만 쓰며 살다 간 兪州 사람 李三晩이도 질마재에선 시방도 꾸준히 神 노릇을 잘하고 있는데, 그 건 묘하게도 여름에 징그러운 뱀을 쫓아내는 所任으로 섭니다.

陰 正月 처음 뱀 날이 되면, 질마재 사람들은 먹글씨 쓸 줄 아는 이를 찾아가서 李三晩 석 字를 많이 많이 받아다가 집 안 기둥들의 밑둥마다 다닥다닥 붙여 두는데, 그러면 뱀들이 기어올라 서다가도 그 이상 더 넘어선 못 올라온다는 信念 때문입니다.

- 「李三晩이라는 神」 일부

위 시는 이삼만(李三晩)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창암 이삼만의 집은 가난하여 아버지가 약초를 캐서 생활했다. 약초를 캐다가 독사에게 물려 세상을 뜨자 그 후 그는 독사가 눈에 띄면 잡아먹곤 하였다. 그래서 뱀은 이삼만을 보면 기가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잡히곤 했다. 호남지방에서 정월의 첫 사일에 뱀의 방어를 위해 이삼만이라는 이름 석 자를 거꾸로 써 붙이면 뱀이 접근하지 못했다. 이

14) 한국민속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81-182면.

삼만(李三晩)이라는 신은 무속에서 말하는 사령(死靈)이나 조상이라는 인격신이다.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어 정상적인 절차를 원만히 마치면 신이 된다고 믿는다. 뱀이나 족제비는 업신의 심부름꾼으로 보기도 하는데, 집안에 이러한 짐승이 나타나면 업을 소홀히 모신 탓이라고 하여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하거나 집안의 주부가 떡을 해놓고 비손을 하기도 한다.

제주도의 가신신앙으로 칠성 신앙이 있는데 이는 뱀을 신격화한 것이다. 칠성본풀이를 보면 귀인의 무남독녀가 중의 도술로 잉태를 하게 되자, 그 딸을 무쇠 석갑에 넣어 바다에 띄웠다. 그것이 제주도에 표착하여 어미뱀과 일곱 딸 뱀으로 변해서 어미 뱀은 외 칠성, 막내딸은 내 칠성으로 되고 기타의 뱀도 각각 자리를 찾아서 좌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외칠성은 어미 뱀이고, 안칠성은 일곱째의 막내딸 뱀이다. 이처럼 제주도에서는 뱀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데, 봉안처는 고팡의 독 밑이다. 제주도 무속에서는 뱀을 당신 혹은 가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즉 차귀당(遮歸堂)이 있는 마을 사람들은 뱀을 위하는 신앙을 지닌다. 이는 순종과 위무로써 뱀의 가해를 막으려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뱀은 족제비, 두꺼비 등의 동물과 함께 재신으로 숭앙¹⁵⁾받고 있다. 일종의 토템으로서 동물 자체가 신체(神體)로서의 숭배 대상이 된다. 당골의 원형성으로서의 ‘李三晩’은 신령성으로 부활하고 있다.

땅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在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앓은뱅이 사내가 있었습니다.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절고 광
 주리도 절었지만은,
 그것만으론 제 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15) 김태근, 앞의 책, 283면.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을 앓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在坤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다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 人情은 바닥난 것이니, 하늘의 罰을 면치 못할 것이
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러하여서, 그의 세 끼의 밥과 추
위를

견딜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보아 주어오고 있었습니다.

(중략)

「재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 같이 안 생겼던가. 거북이도
학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이 千年이 된다고 하네. 그러니, 그 긴
목숨을 여기서 다 견디기는 너무나 답답하여서 날개 돋아나 하늘
로 신선 살이를 하러 간 거여…….」

- 「神仙 在坤이」 일부

이 시에는 앓은뱅이 재곤이를 돌보는 일을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
각하는 선인들의 삶의 모습이 토속적인 신앙과 함께 깊숙이 투영되어
있다. 재곤이라는 인물과 거북이의 형태적 유연성이 돋보이는 이 시
는 죽음처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신성하게 묘사한다. 마을
사람들은 세 끼의 밥과 견딜 수 있는 옷과 이불로 재곤이를 돌봐줬지
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세계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날개를 단 모습의 신선으로 승화됨으로써 영
원성을 부여받는다. 비천한 삶의 주인공이 신선으로 영생하는 과정을
통해 시인은 재곤이의 초월자로서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즉 그
는 ‘목숨이 천년’이나 되는 시간성을 부여받고, ‘날개 돋아나 하늘로 神

仙살이'처럼 무한한 공간을 부여받았다. 말하자면 축제에서 신을 영원한 세상으로 보내는 송신(送神)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곤이의 초월적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지상적 삶과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다.

2.2. 샤머니즘과 형상화

앞에서 살펴본 제의적인 모티브 곧 원형화소는 질마재의 시가 생성되는 층위의 심층구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심층의 원형화소는 샤머니즘과 정령사상의 유착한 정서의 투영 같은 융합-변형 과정을 통하여 언어미학적인 형상화 곧 은유-상징-선문답 같은 표층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질마재 시의 언어적 형상화의 표층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시적 형상화의 원관념은 무속 신앙의 샤머니즘적 사유와 정령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이를 간단하게 도식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질마재 시 형상화의 구조

	형상화의 기초	출전 및 구성	형상화 과정
1	질마재 언어미학		표현성▲
2	치환-상징-은유	인물-사건-배경	변형성▲
3	샤머니즘-정령신앙	삼국유사, 마을 전설	심층성▲

무속에서는 인간의 생사, 길흉, 화복, 질병 등 모든 운명 일체가 신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이 신에는 정신과 잡귀가 있다. 정신(精神)은 우주의 자연신령, 조상신, 영웅신, 무당의 신당에 모셔지는 신령인 무조신 등 인간을 수호해주는 착한 선령으로 사당이나 굿당의 신당에

모셔진다. 반면 악귀는 이승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원통하게 죽은 인간의 혼으로 승천하지 못하고 악신이 되어 인간에게 온갖 재난과 고통을 끼친다.¹⁶⁾ 이 무신들은 무한한 전능의 능력자로 나타나 인간에게 이성적인 계시를 통해 능력을 인도, 행사한다기보다는 무서운 고통을 주는 벌로써 신의 의사를 전달하기에 비록 인간을 보호해 주는 신이라도 공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신을 숭배하여 따른다는 거룩한 마음보다는 신의 의사에 어긋나면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공포감이 언제나 앞선다.¹⁷⁾ 그러나 누구나 이런 무신들을 쉽게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당이 그의 수호신인 몸주신과 곁에서 등장하는 신령들, 그리고 신모에게 물려받은 신령들을 모신다면, 단골은 무의 신령들 가운데 집안과 관련된 신, 즉 조령, 성주, 터주들을 집에 모셔두고 의례를 행한다.¹⁸⁾

무속은 사람들의 갈등과 불안을 없앤다는 벽사에 그 존재 의의가 있다. 무당이 하는 일은 대부분 미신이나 주원과 같지만 그것은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무당은 미래에 대한 암시와 예언을 통해 위안을 주고, 공수를 통해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한다. 두려움을 없애고 믿는 이의 상담자가 되어준다. 무엇인가 잘 되리라는 자성 예언(自成豫言, Pygmalion)적 역할 기대가 있다.

바닷물이 넘쳐서 개울을 타고 올라와서 삼대 울타리 틈으로
새어 옥수수밭 속을 지나서 마당에 흥건히 고이는 날이 우리 외
할머니 네 집에는 었었습니다. 이런 날 나는 망둥이 새우 새끼
를 거기서 찾노라고 이빨 속까지 너무나 기쁜 종달새 새끼 소리

16) 조흥윤, 『巫와 민속문화』, 민족문화사, 1990, 64-65면.

17) 김태곤, 앞의 책, 286면.

18) 조흥윤, 앞의 책, 34면.

가 다 되어 알발로 낚잡거리며 쫓아다녔습니다만, 항상 누에가 실을 뽑듯이 나만 보면 옛날이야기만 무진장 하시던 외할머니는, 이때에는 웬 일인지 한 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벌써 많이 늙은 얼굴이 엷은 노을빛처럼 불그레해져 바다쪽만 멍하니 넘어다보고 서 있었읍니다.

그때에는 왜 그러시는지 나는 아직 미처 몰랐읍니다만, 그 분이 돌아가신 인제는 그 이유를 간신히 알긴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 다니시던 漁夫로, 내가 생겨나기 전 어느 해 겨울의 모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선지 휘말려 빠져 버리곤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라 하니, 아마 외할머니는 그 남편의 바닷물이 자기집 마당에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 「海溢」 전문

위 시에서는 바다와 육지가 이루는,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자연현상으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바다와 육지로 나누는 경계는 해일을 통해 허물어진다. 다시 말하면 외할머니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무는 해일에 힘입어 외할아버지와 해후하게 된다. 이 시에서 바다 속 또는 저 너머는 죽은 이들의 영역, 즉 죽음의 영역이다. 살아 있던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의 기억 속에 남아서 존재하므로 살아있음과 죽음의 한계를 벗어난 초현실적인 신화의 세계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삶의 세계로 되돌아온 넋과 살아있는 자가 만나는 영적인 만남은 접신이고 신들림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물에 빠져 죽은 넋이 이승에 되돌아오는 무속적 영혼관을 담고 있으며 인간과 바닷물이 구분되지 않는 무속적인 반혼(返魂) 관념의 표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무속적인 영혼관과 사령(死靈)이 그 무엇에 빙의되어 이승으로 온다는 믿음이 있다. 무속의 초월성은 영신-오신-송신과 같은 단계적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신과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적인 신무일체의 교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 때 주술 행위를 하는 것은 무당 곧 단골이 징검다리의 구실을 하게 된다.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海湓엔요.
 예선살 나이에 스물한살 얼굴을 한
 그려고 천살에도 이젠 안 죽기로 한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

생솔가지 울타리, 옥수수밭 사이를
 올라오는 海湓 속 신랑을 마중 나와
 하늘안 천길 깊이 묻었던델 파내서
 새 각시때 연지를 바르고, 할머니는

-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海湓 -쓰네트 試作」 일부

이 시에서도 무속으로서의 상징성이 보인다. 무속에서는 인간을 육신(肉身)과 영혼(靈魂)의 이원적(二元的) 결합체로 보고, 영혼이 육신의 생존적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즉 영혼은 무형의 에너지로 인간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는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간 상태를 죽음으로 봄으로써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혼의 힘으로 믿는 것이다. 영혼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거나 내세인 저승으로 들어가서 영생하는 불멸의 존재¹⁹⁾이다. 즉 이 시는 죽은 넋이 이승으로 되돌아오는 무속적 영혼관을 그리고 있다. 해일 속에

19) 김태곤, 앞의 책, 300면.

서 ‘천 살에도 이젠 안 죽기로 한’ 신랑의 영혼을 보는 할머니의 홍조 띤 얼굴이 연지를 바른 것 같다는 이 시는 할머니의 영혼 불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외할머니는 무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돌아온 신랑의 혼과 만나고 있다. 이러한 영적 교류는 무당의 넋두리와 같이 초혼가를 부르게 되어 무속적 상상력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무속 신앙은 오랫동안 전승되어 내려온 전통적인 믿음이며 집단무의식(集團無意識, collective unconscious)이 된다. 이 시는 그런 인간의 원형적 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리 하면, 문학공간으로써 질마재는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는 화소들과 과거로부터 전하는 마을의 전설들이 자리하는 서사적인 원형성을 심층으로 한다. 이르자면 김유신과 천관녀 관련한 전설이 ‘말피’에서, ‘신부’에서는 일원산 황씨부인의 마을 전설이 재구조화를 거쳐 치환과 은유의 형상화 과정을 거쳐서 질마재 시집의 언어미학을 표층으로 이루어낸다. 시편마다 미당 특유의 사투리에 담긴 정서를 농익은 표현으로 향토성과 토속성을 형상화의 시학을 드러낸다. 이러한 질마재신 화의 문학공간을 살려서 사이버와 테마파크 공간으로 접목하여 가상현실(假想現實, VR)이나 증강현실(增強現實, AR) 같은 영상기술과 접목, 문학교육이나 관광문화 산업의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이 연구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3. 정령관과 시적 상상력

정령 신앙은 샤머니즘과 함께 전형적인 원시신앙으로서 애니미즘(animism)에서 나온 것으로 신체(神體)는 흔히 호랑이 상이나 신선상으로 나타난다. 무당은 산신을 불러들여 놀리는 제의과정에서는 산신의 신복(神服)을 상징하는 무복(巫服)을 입고 산신의 역할을 하여 산

신의 몸짓과 말을 한다. 이러한 산신 신앙의 원류는 삼국유사의 고조선 단군의 제단문화에서 비롯한다. 단군이 마지막으로 아사달의 산신(山神)이 된 것에서 비롯한다.²⁰⁾

강릉단오제 때 대관령의 한 나뭇가지에 신이 내려 신을 맞이 하는데 신목(神木)을 굿단에 모셔와 굿을 한다. 당목만이 아니라 크고 오래된 나무에는 신이 깃들인 것으로 믿었으며 그 신목(神木)은 인간들에게 화나 복을 준다고 믿어 왔다. 따라서 정초에는 큰 나무에 새끼로 금줄을 둘러놓거나 비단 조각을 매어 놓고 고사를 올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애니미즘에 기인한 자연물의 정령관 승배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마재 堂山나무 밑 女子들은 처녀 때도 새각씨 때도 한창 壯年에도 戀愛는절대로 하지 않지만 나이 한 오십쯤 되어 인제 마악 늙으려 할 때면 戀愛를 아주 썩 잘한다는 이애깁니다. 처녀 때는 친정부모 하자는 대로, 시집가선 시 부모가 하자대로, 그 다음엔 또 남편이 하자는 대로, 진일 마른일 다 해내노라고 겨를이 영 없어서 그리 된 일일런지요? 남편보다도 그네들은 웅덩이도 훔씬 더 세어서, 사십에서 오십 사이에는 남편들은 거의가 다 뇌점으로 먼저 저승에 드시고, 비로소 한가해 오금을 펴면서 그네들은 戀愛를 시작한다 합니다.

차푸점이네도 金서운니네도 그건 두루 다 그렇지 않느냐구요. 인제는 房을 하나 온통 말아서 어른 노릇을 하며 冬柏기름도 한번 마음껏 발라보고, 粉 세수도 해보고, 金서운니네는 나

20) 『삼국유사』, 권1. 기이편 「고조선」, "號曰壇君王儉. 以唐高(堯)卽位五十年庚寅(唐高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武)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遷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이는 올해 쉬흔 하나지만 이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이빠졌는데,
 이른 새벽 그네 房에서 숨어나오는 사내를 보면 새빨간 코피를
 흘리기도 하드라고요. 집 뒤 堂山의 무성한 암느티나무 나이는
 올해 七百살, 그 힘이 빠져서 그런다는 것이여요.

- 「堂山나무 밑 女子들」 전문

수목에도 정령이 있다는 믿음은 고대로부터 하늘의 신이 하강할 때 나무를 통해 내림을 한다는 것이 그 예이다. 말하자면 수목신(樹木神)의 경우다. 환인의 아들 환웅도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 내린 기록이 있으며 이러한 예는 나무는 신과 관련이 있고 신성시 되었으며, 신이 깃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에서 당산나무 밑 여자들이란 보편적 삶을 꾸리는 인물들이다. ‘진 일 마른 일 다 해라’처럼 굴종과 고난을 겪어야 했던 ‘차푸접이네’나 ‘쑤서운니네’는 그 이름의 음상이 환기하듯 푸대접과 서운함으로 삶을 이어온 여인네들이다. 그러나 이 범속한 여인네들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서정주는 이 시와 관련하여 “느티나무 堂山 밑의 내 어린 살 내음새와 땀이 뻘 그 바윗돌을 생각하고 있으면, 저절로 내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서운니>라는 이름의 이상한 소녀…… 육신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무슨 정령같이 느껴지는 조그만 이승 살이는 하고, 밝은 소녀 귀신으로서만 아는 이들의 기억에 남으려 생겨났던 듯한 그 소녀의 모양이다. 그 서운니라는 갈매(葛梅) 빛의 저 고리를 입고 봄 보리밭 사이 나물 바구니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그 요절한 소녀 서운니다.”²¹⁾라고 회상하고 있다.

인용시의 전체적인 서사는 여자들이 성적 본능이 강하여 삼종지덕

21) 서정주, 『질마재 신화』, 일지사, 1995, 27면.

에 얽매어 있을 때에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면 사내의 코피를 흘리게 할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강력한 성적 능력은 ‘암 느티나무’의 ‘칠백 살’이나 되는 나이의 힘이 여인들에게 미쳐서 그렇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것은 나무의 정령이 옮겨 다닌다는 정령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본능적이고 주술적인 마력까지 지닌 여인들은 화자의 이야기꾼으로서의 객관적 거리에 의해서 화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여인들로 나타난다.

산신은 산에 존재하며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는 모든 자연물에는 정령이 있고 그 시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여자들이 성적 본능이 강하여 삼중지덕에 얽매어 있을 때에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면 사내의 코피를 흘리게 할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강력한 성적 능력은 ‘암 느티나무’의 ‘칠백 살’이나 되는 나이의 힘이 여인들에게 미쳐서 그렇다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것은 나무의 정령이 옮겨 다닌다는 정령관을 기반으로 한다.

잉잉거리는 불고추로
 망가진 썩이파리로
 또 소금덩이로
 西歸浦 바닷가에 표착해 있노라니
 漢拏山頂의 山神女
 두레박으로 나를 떠서 길어 올려
 시르미 난초밭에 뉘어 놓고 간지럼을 먹이고
 오줌 누어 목욕시키고
 耽羅 溪谷 쪽으로 다시 던져 팽개쳐 버리다.
 그네 나이는 九百億歲.

그 자디잔 九百億 개 山桃花 빛 이쁜 주름살 속에
 나는 흡수되어 당굴어 내려가다.
 너무 어두워서 옷은 다 벗어 찢어 햇불 붙여 들고
 기다가 보니 새벽 세 時
 觀音寺 법당마루에 가까스로 와 눕다.
 누가 언제 무슨 핀셋으로
 九百億 개 그네의 그 山桃花 빛 주름살 속에서
 나를 도루 집어내 놓았는지
 나는 겨우 꺼내어진 듯 안꺼내어진 듯
 이 해 한 달 열흘을 꼬박 누워 시름시름 앓다.

- 「漢拏山 山神女 印象」 전문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제사를 올리고 기원하였으며 마을의 평안이
 나 풍작(豊作), 기우(祈雨) 등을 산신에게 빌었다.

위 시에서 산신녀는 ‘구백억 세’의 엄청난 생존능력을 지닌 존재로
 서 그려지는데, 화자가 ‘이쁜 주름살’에 흡수되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아니마에의 빙의(憑依) 상태에서 화자를 건져
 낸 것은 관음사의 법력²²⁾임을 알 수 있다. 아니마의 힘은 관음사의 힘
 보다 ‘한 달 열흘을 꼬박 누워 시름시름’ 앓도록 할 수 있을 만큼 더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화자는 드러낸다. 이처럼 정령은 자연을 숭
 배하고 자연으로부터 삶의 생명력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원초적 심성 곧 생래적인 에너지다. 이런 원초적인 토양에서
 제의적인 원형의 모티브가 배태된다.

지금까지 분석한 정령 신앙은 주로 산신과 나무 신앙에 기반한
 신앙을 살펴 보았다. 문학공간으로써 산이란 회귀의 공간이며 하늘

22) 육근용, 앞의 책, 1997, 107면.

의 태양을 향한 솟대와 같은 신성한 공간이다. 인간이 살다가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공간이다. 이러한 문학공간을 가상화하여 가상현실(假想現實, virtual reality)이나 증강현실(增強現實, argument reality)로 만들어 현장성과 시대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이버나 테마파크의 현장으로 살려 가야할 과제가 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서정주 시에서는 단군제의에서 말미암는 단골 신앙에서 비롯하는 무속적인 계승성을 가장 언어미학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샤머니즘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우주의 유기적 섭리다. 서정주는 이 우주적 섭리를 바탕으로 샤머니즘과 주원의 언어를 시 표현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과 인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의미한다. 신과 인간의 이러한 소통은 마침내 무속 신앙을 매개로 한 인간 전체의 보편적인 소통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서정주의 시에서 무속적 화소가 시적인 언어 미학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무속의 통과의례(通過儀禮)에 있어서 제의 공간으로서의 특수한 무속적 상황과 강신무의 입무(入巫) 제의와 무속적 원형성에 기반하는 시적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다. 즉 그것은 무속의 가치관과 정령관을 수용하여 변용시킴으로써 미당시 속에 무속적 구조가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침내 이러한 무속적 원형 화소들이 시적 영감과 엑스터시를 불러 일으킨다.

제의의 시공을 넘나드는 무속의 초월성은 영신-오신-송신과 같은 단계적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신과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적인 일체

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 때 주술 행위를 하는 것은 무당 곧 단골이 징검다리의 구실을 하게 된다. 단골의 발생론적인 출발은 단군(壇君)에서 비롯한다. 자연외경(自然畏敬)에서 말미암는 정령(精靈) 신앙은 원시신앙의 애니미즘에서 나온 것으로 신체(神體)는 흔히 범 곧 호상이나 신선상으로 드러난다. 무당은 산신을 불러들여 놀리는 제의과정에서는 산신의 신복(神服)을 상징하는 무복(巫服)을 입고 산신의 역할을 하여 산신의 몸짓과 말을 한다. 일종의 빙의라고 하겠다. 강릉단오제에서 대관령의 한 나뭇가지에 신이 내려 신을 맞이하는데 신목(神木)을 굿단에 모셔와 굿을 한다. 이러한 흐름은 미당의 질마재 시에서도 언어미학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신화적 화소를 바탕으로 샤먼적 화소를 서사적으로 융합하면서 민족적인 집단무의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것이 다시 신화적 원형성과 정령관을 언어 예술로 흡수함으로써 한국인의 현대적인 저항감을 해소시키고 원형문학으로 신화의 재구조화라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즉 신화와 무속의 원형성을 문예미학으로 변용시키고 있다. 특히 미당 시에서 샤머니즘 세계관은, 어린 시절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시적 자아의 발현이 우주적 감각과 세계에 눈뜨게 하는 원초적 경험으로, 또한 토착 정서와 결합되어 역사적으로 응어리 맺힌 한을 풀어내려는 제의적 상상력으로 승화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자연외경의 무속 신앙은 정령관과 샤머니즘적인 집단무의식이 고조선의 단골문화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바, 문학적인 감성과 자연외경의 영성이 결합하는 전통은 민족공동체의 정신세계로 살려나아가야 할 지표가 된다.

질마재라는 문학공간을 영상기술(CT)과 접목하여 가상현실(VR)은 물론 증강현실(AR)로 구축하여 사이버나 문학교육이나 영상문화의 가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작업이 기대된다.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Ritual Prototypicality
about Midang's poem

Choi, Jeong-suk(Hoseo University)

The study sought to explore the symbolic variation of the pixel from a circular perspective by selecting a work with a propitious pixel among Midang poems. myth or shamanism can be regarded as a form of culture, such as a festival, centering on Shaman, a religious professional who directly interacts with gods and spirits and performs various rituals, including oracle, prophecy, or bottle-clothes. Therefore, it is a religious phenomenon that takes on the characteristics of shamanism with circular pixels and a culture gradually refined from the natural appearance. Shamanism itself implies the main origin and propensity that led to the act of offering. And Shamanism has similar aspects in the same cultural sphere, even though ethnic groups are different.

The circular pixels revealed in lyricist poetry are embodied in the space of regeneration and the time of offer, and the main source of shamanism is excitedly sublimated into symbolic language art in poetry. Shamanism is a spiritual world and an organic principle believed to dominate human life on the basis of superpower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science. Based on this organic principle,

Seo Jung-ju literaryly embodies the poetic image of Shamanism and Joo Won. And that again means direct and indirect communication between God and man. The communication between God and man eventually leads to the communication of all human beings through the medium of God. Thus, it can lead to a universal link in the culture of the right-of-rule, which carried out political and religious functions between God and man. This is the culture of self-adultery, or teacher. This is because the teacher comes from the meaning of "next." The shamanistic element of the poem of Seo Jeong-ju, expressed as the process of the festival, is based on the shamanistic situation of the spirit, or the initiation ceremony, and the shamanistic archetypes that can be looped with the spirit and transmission.

Meanwhile, folk beliefs refer to various beliefs handed down from the private sector without having a religious system. It is the longest-lived spiritual world in the heart of Koreans, encompassing village beliefs, family beliefs, and shamanistic beliefs that form the base culture of folk beliefs. It is based on shamanism in its origin.

In the poetry of Midang, the folk world served as a stepping stone for the past and the present with poetic inspiration. It is our traditional life with historical eternity. This eternity is expressed as a part of a sticky and cordial life that melts into traditional customs, giving it vivid realism. Thus the shamanistic world serves to produce a unique religious spirituality and literary sensibility for the Midang. As such, the elements of folk belief in Midang's poems are depicted as a form of shamanistic cultural community life. The shamanistic function shown in Midang is of literary and social significance in

reviving folklore in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life of warm regions or people.

This paper explored around a collection of poems called "Jilmajae Myth." Based on the primitive nature of myths and shamanism, it is clearly demonstrating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new myth by linking them to the collective unconsciousness of modern people. In "The Myth of Zilmajae," the world view of Shamanism is represented by the imagination of the main spirituality, which solves historical and cultural resentment in combination with indigenous sentiments, by melting shamanistic spirituality and literary sensibilities through childhood communion with nature.

Key words: Jil Ma Jae, shamanism, shaman, dead soul, Ritual, spirit God, Regeneration, Magic

[참고문헌]

□ 기본 자료

- 서정주, 『질마재 신화』, 일지사, 1995.
 서정주, 『미당 시 전집 I』, 민음사, 1994.
 서정주, 『미당 시 전집 II』, 민음사, 1994.
 한국민속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단행본

- 김대행, 『한국시의 전통연구』, 개문사, 1980.
 김열규, 『미당연구』, 민음사, 1994.
 김태곤, 『한국무속신화』, 집문당, 1985.
 육근웅, 『서정주 시 연구』, 국학자료원, 1997.
 이몽희, 『한국현대시의 무속적 연구』, 집문당, 1990.
 임재해,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지식산업사, 1991.
 장도준, 『한국 현대시의 전통과 새로움』, 새미, 1998.
 조흥윤, 『巫와 민속문화』, 민족문화사, 1990
 최정숙, 『한국문학의 향토성』, 지문당, 2014.
 최정숙, 『한국문학의 민속적 상상력』, 지문당, 2014.

□ 논문

- 김수복,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위한 ‘질마재신화’ 공간분석」, 『한국문예창작』 통권14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8, 201-226면.
 김수이, 「질마재 신화에 나타난 공동체의 상상력」, 『한국문학연구』 48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5, 181-215면.
 김장선, 「미당 서정주 시의 원형성 고찰」,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1986, 1-34면.
 문태준, 「서정주의 서방지향과 정토사상」, 『순천향인문과학논총 28권』, 순천향대인문과학연구소, 2011, 5-39면.

- 양소영, 「질마재신화에 나타난 샤머니즘 양상연구」, 『겨레어문학』51집, 겨레어문학회, 2013, 417-446면.
- 오문석, 「한국시에 나타난 샤머니즘 연구」, 『한국시학연구』제38호, 한국시학회, 2013, 101-126면.
- 오태환, 「훈과의 소통, 또는 무속적 요소의 문학적 층위」, 『국제어문』 제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203-241면.
- 오태환, 「서정주시의 무속적 상상력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1-159면.
- 육근웅, 「서정주 시의 정체성」, 『한민족문화연구』8집, 한민족문화학회, 2001, 93-114면.
- 이몽희, 「한국 근대시와 무속적 구조 연구 - 김소월, 이상화, 이육사, 서정주를 중심으로」,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88, 1-162면.
- 이상오, 「미당 서정주론」, 『호원논집』9집, 고려대, 2000, 27-44면.
- 이창식,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은지논총』 30권, 은지학회, 2012, 7-45면.
- 최정숙, 「요하문명의 문화기호론적 탐색」, 『선도문화』23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2017, 217-245면.
- 홍용희, 「원형 상상과 주술공감」, 『한국시학연구』제32호, 한국시학회, 2011, 335-360면.

접수일: 2020.12. 09 총평일: 2020.12.19 게재확정일: 2020.12. 23